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수량	총 10매
배포일시	2021. 11. 25.(목)	담당부서	기획운영단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과
주관부서	국립현대미술관 홍보고객과	담당자	김유미 과장 TEL 02-3701-9862 권인철 학예연구사 TEL 02-2188-6182

국립현대미술관 「2021 미술과 보존과학」 학술심포지엄 《백남준 '다다익선' 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나?》 온라인 개최

- ◇ 한국, 미국, 영국, 독일 등 6개국 미디어아트 보존전문가 9인 참여
- ◇ 백남준 <다다익선> 보존관리 방안, 미디어아트 보존 방향성 등 논의
 - 비대면 온라인 운영 기간 중 누구나 발표영상 시청 가능
 - 11.26.(금) 오후1시부터 12.10.(금) 오후1시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 공개

국립현대미술관(MMCA, 관장 윤범모)은 「2021 미술과 보존과학」 학술심포지엄 《백남준 '다다익선' 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나?》를 11월 26일(금)부터 12월 10(금)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제작으로 기획되었으며, 해당 기간 중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발표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 설치된 백남준(1932~2006)의 <다다익선>(1988)은 과천관 건립 및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서울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와 맞물려 미술관 건축 특성에 맞게 기획·제작된 작품이다. 총 1,003대의 브라운관(CRT) 모니터가 활용된 <다다익선>은 백남준 작품 중 최대 규모이며, 지난 2003년 모니터를 전면 교체하였고 이후 15년 동안 수리를 반복해오다 2018년 2월 전면적인 보존·복원을 위해 가동을 중단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019년 9월 <다다익선> 보존복원 계획을 발표, 작품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일부 대체가능한 디스플레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다다익선> 보존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다다익선> 보존·복원 성과를 공유, 중간 점검하고, 성공적인 보존·복원 및 중장기 안정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 참여하는 국내·외 미디어아트 보존 분야 연구자들은 <다다익선> 사례처럼 시대와 기술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미디어아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자가 경험한 보존·복원 사례를 공유하고 미디어아트를 다룸에 있어 보존 분야가 지향해야할 미래 방향을 논의한다.

심포지엄은 이정성 백남준문화재단 이사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권인철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가 <다다익선> 보존·복원 진행 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마르티나 하이드보글(Martina Haidvogel) 스위스 베른예술대학 현대미술보존 교수, 죠슈아 처칠(Joshua Churchill)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작품보존 전문가가 백남준의 <TV Crown>(1965/1999)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해 발표한다. 그리고 패트리샤 팔카오(Patricia Falcao) 영국 테이트 모던 보존전문가가 조던 울프슨(Jordan Wolfson)의 작품 보존 사례로 조각 보존전문가와 미디어아트 보존전문가의 협업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 도르카스 물러(Dorcac Müller) 독일 예술과 매체 기술센터(ZKM) 비디오 복원실 팀장과 피터 올렉식(Peter Oleksik) 뉴욕 현대미술관 보존전문가가 각각 ‘전자미술의 재평가’와 ‘시간 기반 매체 보존의 기술적 변동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타이라 유이치로(平諭一郎) 동경예술대학교 특임교수는 미디어아트 특성에 따른 보존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신기운 영남대학교 트랜스아트과 교수는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Metaverse)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보존의 미래 확장성과 재생-재현 가능성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자 영상은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www.youtube.com/user/MMCAKorea)를 통해 11월 26일(금) 오후 1시부터 12월 10일(금) 오후 1시까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11월 26일 개최 첫날에 한해 QR코드를 통해 질문을 보낼 수 있으며 추후 별도 링크를 통해 답변이 게재될 예정이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다다익선〉은 국내·외 예술계에 미디어아트 작품의 본질과 보존·복원 범위, 방향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다다익선〉이 던진 화두를 함께 고민하고 향후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2년은 백남준 탄생 90주년인 만큼 미디어아트의 선구자인 백남준의 역작이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의 상징인 〈다다익선〉 복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 이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06년부터 미술품 보존복원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를 한 자리에 소개하는 ‘미술과 보존과학’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로 6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미술품 보존 기술 교류 및 담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과 권인철 학예연구사(☎ 02-2188-6182)에게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이미지)

- 웹하드 주소: <http://webhard.mmca.go.kr>
- 아이디: mmcapr1
- 암호: 0987
- 상단아이콘 [전용탐색기/웹탐색기/백업] 중 [웹탐색기] 클릭→ [Guest 폴더] → [2021 보도자료] → [국립현대미술관 「2021 미술과 보존과학」 학술심포지엄 온라인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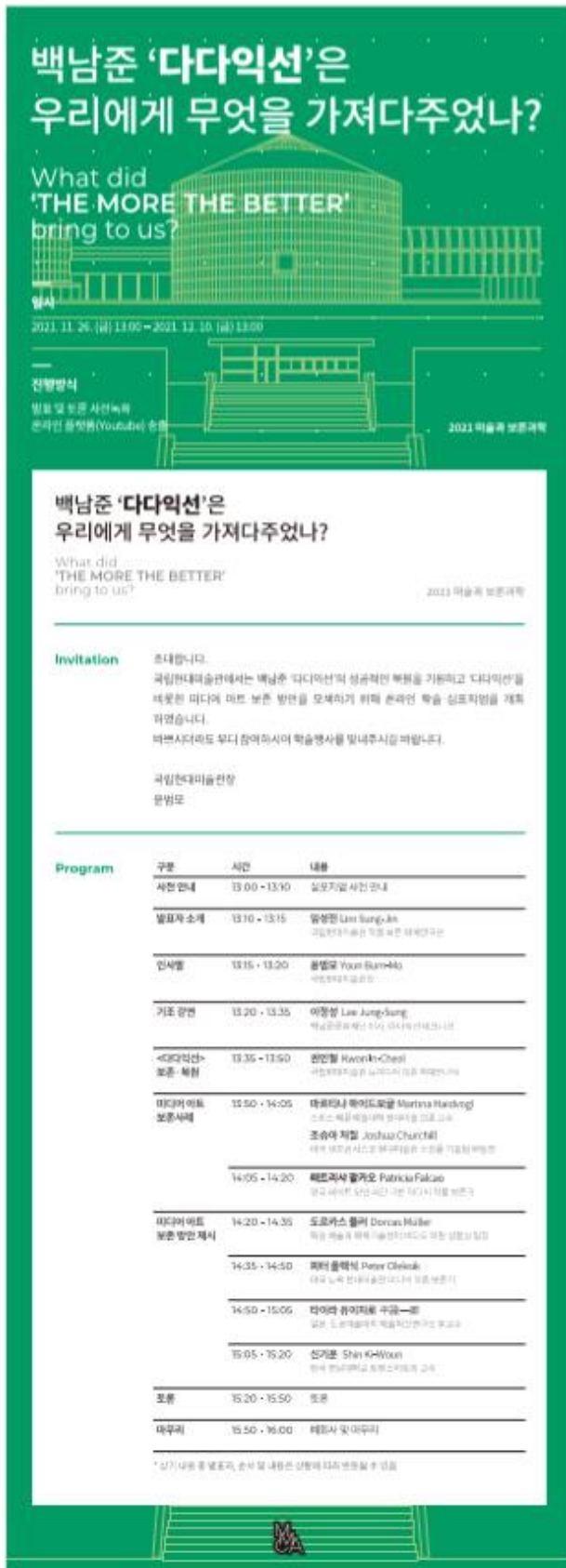
■ 학술심포지엄 개요

- 행사명: (국문) 백남준 '다다익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나?
(영문) What did 'The More, The Better' bring to us?
- 온라인 개최 기간: 2021. 11. 26.(금) 13:00 ~ 2021. 12. 10.(금) 13:00
-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 www.youtube.com/user/MMCAKorea
-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국립현대미술관 누리집(www.mmca.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심포지엄 포스터
 2. 심포지엄 발표 주제
 3. 발표자 약력
 4. 백남준 작가 및 〈다다익선〉 소개



구분/세션	발표주제	발표자
기조강연	백남준과 <다다익선> Paik Nam-June and 'The More The Better'	이정성 (Lee Jung-sung) 백남준문화재단 이사, <다다익선> 테크니션
'다다익선' 보존복원	'다다익선' 보존복원 과정과 보존관리 방안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process of 'The More The Better' and maintenance plan.	권인철 (Kwon In-cheol) 국립현대미술관 뉴미디어 보존 학예연구사
미디어아트 보존사례	백남준 作 'TV Crown'의 보존 Conserving Nam June Paik's 'TV Crown'	마르티나 하이드보글 (Martina Haidvogel) 스위스 베른예술대학 현대미술보존 교수
	조슈아 처칠 Acquiring Joshua Churchill's colored sculpture	조슈아 처칠 (Joshua Churchill)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소장품 기술팀 부팀장
	조던 올프슨의 유색 조각품 수집 Acquiring Jordan Wolfson's colored sculpture	패트리샤 팔카오 (Patricia Falcao) 영국 테이트 모던 시간 기반 미디어 작품 보존가
미디어아트 보존 방안제시	전자 미술의 재평가 Re-Valuation of Electronic Art	도르카스 뮐러 (Dorcas Müller) 독일 ZKM 비디오 복원 실험실 팀장
	뉴욕 현대미술관의 시간 기반 매체 보존의 기술적 변동성 Technological variability in time-based media conservation at MoMA	피터 올렉식 (Peter Oleksik)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 미디어 작품 보존가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와 관람 경험 사이의 정체성 Identity between the elements that make up the artwork and the viewing experience	타이라 유이치로 (平諭一郎) 동경예술대학교 예술혁신연구소 부교수
	<다다익선>으로 가늠해보는 메타버스 안에서 설치작업의 재생-재현가능성 The reproducibility and reproducibility of the installation work in the metaverse which is measured by 'The More The Better'	신기운 (Shin Ki-woun) 영남대학교 트랜스아트과 교수

이정성 아트마스터 대표 겸 백남준문화재단 이사



- 백남준 작가 작품 관련 TV 시스템 구축과 재현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작업을 수행. 대표작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다다익선>이 있음.
- 현재 <다다익선> 보존복원 자문위원, 대전시립미술관 소장 ‘프랙탈 거북선’ 등 백남준 작가의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 보존복원 진행 중.

권인철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 국내 첫 번째 미디어 아트 보존 전문 학예연구사. 뉴미디어 보존 담당.
-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개관과 함께 뉴미디어 및 영상 보존처리실 구축·운영. 백남준, 진기종, 육태진 등 다수의 미디어아트 보존처리 진행. 뉴미디어 아트 보존을 위한 멀티미디어 장치 및 기록매체의 관리방법, 보존전략, 보존처리 방법 등 연구.

마티나 하이드보글(Martina Haidvogel) 스위스 베른예술대학교 현대미술보존교수



- 미국 SFMoMA 미디어 보존가(Associate Media Conservator)로 근무하면서 미디어 아트 컬렉션의 문서화와 보존 계획을 시범 운영(2011-2019).
- 현재 베른예술대학교 현대미술보존 교수. 오디오 예술품 보존 전략 및 미디어 보존과 박물관 소장품 관련 강의 및 저술 진행.
- 베른 예술대학교(Bern University of the Arts) 근현대 미술 보존, 석사 학위(Conservation for modern and contemporary art, MA)

조슈아 처칠(Joshua Churchill) 미국 SFMOMA 소장품 기술팀 부팀장

-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SFMOMA) 소장품 기술팀 부팀장 (Assistant Manager of Collections Technical) 및 전시 테크니션(2019~)
-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FMOMA)에서 개최한 백남준 전시 참여.
-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타바버라(UC Santa Barbara) 비디오 및 인쇄물 특화 스튜디오 아트, 우등 프로그램, 학사 학위(Studio Art, honors program, emphases in Video and Printmaking, BA)

※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FMOMA) : 1935년 설립된 20세기 현대미술 작품으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서부 최고의 현대미술관. 현대 회화, 조각, 사진, 디자인, 미디어아트 작품 33,000점 소장. 특히 비토 아콘치(Vito Acconci), 매튜 바니(Matthew Barney) 등 1970년대 초반 이후 미디어 아트 작품들을 소장 및 전시하고 있음

패트리샤 팔카오(Patricia Falcao) 영국 테이트 모던 시간 기반 미디어 보존가

	○ 현대 예술 작품의 디지털 구성 요소를 보존하는 미디어 보존전문가 ○ 2008년부터 테이트 모던 (Tate Modern)에서 근무하며 미디어 작품 수집 및 보존 연구 진행 중
	○ 베른 예술대학교(Bern University of Arts), 뉴미디어 보존, 석사 학위(Conservation of New media, MA)

도르카스 뮐러(Dorcas Müller) 독일 ZKM 비디오 복원연구실 팀장

	○ 독일 예술과 매체 기술센터(ZKM)의 비디오 복원 연구실 (Laboratory for antiquated video systems)의 창립 멤버(2004~)
	○ 카를스루에 예술 디자인 대학교(Statliche Hochschule für Gestaltung) 미디어 이론, 박사 학위(Media Theory, PhD)

피터 올렉식 (Peter Oleksik) 미국 MoMA 미디어 보존가

	○ 2016년부터 MoMA 미디어 보존가(Associate Media Conservator)로 근무 중 ○ 2011~2017년 뉴욕대학교 외래교수(Adjunct Professor) ○ 미디어 보존 협력 단체인 'Matters in Media Art (MMA)' 소속 ○ 켄 코헨 (Jem Cohen), 후가지 (Fugazi), 소닉 유스 (Sonic Youth) 등 예술가들과 협업 진행
	○ 뉴욕대학교(NYU) 동적 이미지 기록 및 보존, 석사학위(Moving Image Archiving and Preservation, MA)

타이라 유리치로 (平諭一郎) 일본 동경예술대학교 특임교수

	○ 일본 동경예술대학교 특임교수. 교내 예술혁신연구소 (Art&Science LAB)에서 미술과 문화재 보존 연구 ○ 2020년부터 스미소니언 갤러리 객원 연구원으로도 활동. ○ 2019년 <미술과 보존과학> 국제심포지엄에서 <예술은 보존해야만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
	○ 도쿄예술대학(東京藝術大學), 문화재 보존학 석사 (文化財保存學, 碩士)

신기운 영남대학교 트랜스아트과 교수

	○ 현대미술작품 보존 관련 강의 다수 진행 ○ <무엇에서 그무엇으로 그모든것으로>, <정직한 탐구생활> 등 개인전, <Qu-e-st 현대미술 작가들이 만드는 VR 미술탐험>, <반짝반짝 세운 상가> 등 참여 ○ 2012년 SIA 미디어 아티스트 어워드, 2010 볼름버그, 뉴컨템퍼러리 2010 수상 ○ <다다익선> 보존복원 자문위원
	○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교 순수미술 석사(MFA Art Practive, MA),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석사(MA)

붙임 4 백남준 작가 및 <다다익선> 소개

□ 백남준(1932 - 2006)

- 백남준은 1932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과 홍콩에서 중학교를, 일본 가마쿠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도쿄대학교에 진학해 미학을 전공하였다. 이후 1956년 독일로 건너가 유럽 철학과 현대 음악을 공부하는 동안 동시대 전위 예술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기존의 예술 규범, 관습과는 다른 급진적 퍼포먼스로 예술활동을 펼치는 등 1960년대 독일 플럭서스(Fluxus) 운동*을 주도하였다.
- 1963년 부퍼탈(Wuppertal) 전시에서 TV를 처음으로 예술에 도입하면서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가 되었다. 1980년대에는 위성기술을 이용한 텔레비전 생방송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통해 전위 예술과 대중문화의 벽을 허무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으며,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1996년 뇌졸중이 발병한 후에도 예술활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1999년 독일 캐피탈지 '세계 100대 작가' 중 8위로 선정되었다.

□ <다다익선> 작품 개요

○ 기본정보

- 제작연도 : 1988
- 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로비
- 구조 : 계단식(총7단) 원추형 철골구조물 ※ 철구조물설계 : 건축가 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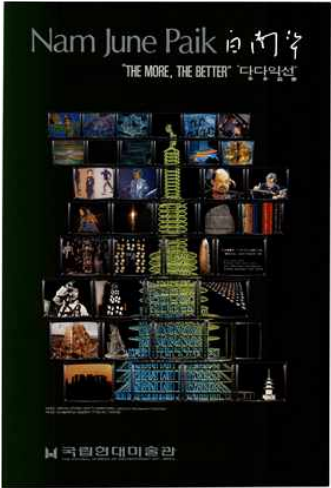
○ 모니터 정보

크기 (회사명)	6인치 (동양)	10인치 (동양)	14인치 (삼성)	20인치 (삼성)	25인치 (삼성)	계
모니터수	60대	552대	93대	103대	195대	1,003대
위치	7, 8층	1, 5, 6층	4, 5층	3층	2층	

□ <다다익선> 보존복원 개요

구 분	내 용
추진경과	· '18.02. : 전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가동중단 조치 · '18.02.~'19.08. : 복원 방향 및 미술관 정책 수립 위한 국내외 전문가 자문(총 40명) · '19.09. : <다다익선> 복원 방향 및 3개년 계획* 발표 언론간담회 개최 * CRT 모니터를 최대한 유지하되 수리·복원이 불가능할 경우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 도입
'20년	· '20.01. : <다다익선> 보존·복원 사업 계획 수립 · '20.05. : 가설비계 및 가림막 설치 · '20.05. : CRT 대체 디스플레이(LCD, OLED 등) 기술 검토 · '20.06. : <다다익선> CRT 모니터 보관 공간 조성 · '20.07. : <다다익선> 보존·복원 자문위원(7인) 위촉 · '20.08. : <다다익선> 보존·복원 안내판 설치 · '20.12. : <다다익선> 보존·복원을 위한 정밀진단 · '20.12. : <다다익선> 수시 보존·관리 구조물 도입 · '20.12. : <다다익선> CRT 수리·교체를 위한 재료 수급 · '20.12. : <다다익선> 보존·복원 과정 영상기록
'21년	· '21.01. : CRT 모니터, 전력설비 등 수리·교체 - CRT 모니터 등 수리·교체, 수급 보존처리 : 용역(3월) → 완료(12월) - 영상재생장치 및 분배기 수리·교체 : 용역(3월) → 완료(12월) - CRT 모니터 대체 디스플레이 제작 및 교체 : 용역(5월) → 완료(12월) · '21.04. : <다다익선> 영상 디지털복원 연구 용역 · '21.07. : <다다익선> 보존·복원 과정 영상기록 및 제작 · '21.11. : <다다익선> 등 뉴미디어 보존 국제 학술행사 개최 · '21.12. : <다다익선> 시험가동 추진
'22년	○ <다다익선> 보존·복원 백서 발간 ○ <다다익선> 재가동 * 시험가동 상황에 따라 재가동 시기 확정 ○ <다다익선> 보존·복원 최종 결과보고회 개최
향후 계획	· <다다익선> 중장기 보존 방안 마련 및 수시 보존·관리 · CRT 모니터 수리·교체용 모니터 확보 계속

□ 관련 사진

	
<다다익선> 설치를 구상 중인 백남준 작가 (1987)	<다다익선> 포스터 (1988)
	
<다다익선> (1988)	320여 대 수복 후 <다다익선> (2015) 사진: 남궁선
	
아카이브 전시 《다다익선 이야기》 전경 (2019)	